

4 아이누 민족의 근현대사

아이누 민족에 의한 연설회의 포스터

메이지 시대에 접어들어 일본이 홋카이도의 개척을 진행해 나가면서 아이누 민족의 생활과 문화는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누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 사진은 1930년경의 사진으로 아이누 민족의 청년들이 삿포로 시계탑에서 연설회를 여는 것을 알리는 포스터입니다. 포스터에는 와진(혼슈인, 本州人) 들의 차별적인 아이누관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주장과 아이누 민족에 대한 시책의 문제점을 따지는 주장 등이 쓰여 있습니다.

메이지 정부는 홋카이도를 일본의 영토로 영입하고 개척을 진행하는 가운데, 아이누 민족에 의한 땅과 강 등의 이용을 엄하게 제한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때까지 주로 수렵(사냥)과 어업으로 생활해 온 아이누 민족의 일상생활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게 됩니다. 거리가 만들어지고 둔전 병이 주둔하면서 아이누 민족이 그때까지 살던 땅으로부터 강제로 퇴출당한 지역도 있습니다. 또한, 1890년대가 되면서 홋카이도의 대부분 지역에 수많은 이주자가 옮겨 오면서 홋카이도의 시, 초, 촌(시읍면)의 어디를 가도 이주자의 인구가 아이누 민족을 훨씬 넘는 상황이 됩니다. 아이누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을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동화 정책의 압력도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둘러싸는 다양한 상황들이 변해가는 가운데 아이누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노력을 합니다. 농업이나 어업에 힘을 기울이고자 노력한 아이누 사람들의 모습을 각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하려고 새로운 학교의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한 사람, 원래 살아온 땅의 권리를 요구하는 운동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1910년대에 들어서면 일본어에 의한 아이누 사람들의 언론 활동도 활발해지면서 신문이나 잡지에는 아이누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견이나 자신의 장래를 논하는 의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이누에 의한 저서와 아이누의 유지자들에 의한 잡지도 발행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러일 전쟁이나 아시아, 태평양전쟁에는 아이누의 남성도 징병 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습니다. 일본 패전 후 민주화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아이누 사람들은 그들의 땅과 생활을 지키는 운동을 일으킵니다. 1960년대 후반경부터는 넓은 시야에서 사회나 정치의 본연의 자세를 주제로 토론하는 논의나 아이누의 문화를 다시 파악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아이누 자신에 의한 전통문화의 기록이나 보존, 계승의 움직임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메이지, 다이쇼, 쇼와에 걸쳐 과거의 아이누 민족에 의해 끊임없이 지속한 다양한 활동들이 현재의 아이누 민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의 아이누 민족의〈목소리〉

근현대의 역사 속의 아이누 민족의〈목소리〉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자신의 말을 확인하면서 연설하고 있는 것은 1946(쇼와 21)년에 설립된 “홋카이도 아이누 협회”의 초대 이사장인 무카이 야마오 씨입니다. 협회는 지금 구나이초(황실에 관한 사무를 맡아 보는 관청)가 관리하고 있는 광대한 목장의 땅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농업이나 어업이 주된 직업인 아이누 민족의 생활 터전을 쌓기 위해서도 원래 아이누가 살아온 땅인 목장 반환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목소리는 사할린 출신의 니시히라 기타로 씨입니다. 1905(메이지 38)년, 러일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사할린을 영토로 영입하고 사할린 지역의 아이누나 율타 등의 선주민족도 일본의 통치하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패전하고 사할린으로부터 철수하면서 아이누나 율타의 많은 사람이 홋카이도로 이주하게 됩니다. 사할린에서 출발할 때의 고초와 더불어 새로운 땅에서 삶의 터전을 꾸려가야 하는 고초. 이 회상에서는 그 일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